

조시현

보낸 사람: "정은정" <mssjdh@lycos.co.kr>

받는 사람: <shcho@cc.sungshin.ac.kr>;

보낸 날짜: 2001년 7월 30일 월요일 오전 10:32

제목: 정대협입니다

김창록 교수님께서 메일을 보내셔서, 조시현교수님과 장완익 변호사님께 보내드립니다.

<김창록 교수님 메일원문>

1. 그간 안녕하십니까?

2. 무사히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공기가 좋아서 김창록은 좋습니다". 하지만 미국 생활은 정말 "당연히 정신이 없"습니다. 40이 넘어 처음 밝은 미국 땅에서 고등학교 3학년 이후 윽게 쟁기지 않은 영어로 "말하면서"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생활을 꾸려가려니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여기 생활은 '혈령'한 것이겠지요.

3. 미국에 온 후 오랫동안 이메일을 쟁기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에야 겨우 인터넷이 연결되어 이메일 체크를 할 수 있었습니만, 약 200통에 달하는 이메일을 아직 충분히 읽어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만 정대협으로 부터 온 이메일은 대충 쟁겨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보내드린 원고청탁서, 2000년법정에 대한 법적인 측면에서의 의의와 등등"에 관련된 이메일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혹시 제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 그러니까 7월 6일 이전에 보내신 이메일인지요? 만일 그렇다면 그 이메일은 지금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메일이 담겨 있는 하드 디스크를 가지고 오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컴퓨터가 도착하지 않아 열어 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어 느쑤이든 그 이메일을 다시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4.

4-1.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저로서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왔습니다. 한국의 피해자들이 있고,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일본 정부가 있는데, 그 양자 사이에서 한국 정부는 계속 애매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을 방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연히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안되며, 소송은 그 책임을 묻는 유효한 방법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4-2. 다만,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다면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속고에 속고를 거듭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3. 그와 관련해서는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다른 다수의 소송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 개인의 청구권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할 경우, 그것은 곧 1965년 협정에 의해 일본 정부의 책임이 한국 정부로 넘어 왔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한국 정부에 대해 요구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일본과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개인의 청구권을 주장하는 소송에서 원고들의 입지가 매우 좁아지게 될 염려가 있습니다. 이 점은 특히 미국에서의 소송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일본에서의 소송은 원고 승소의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의 재판소가 한국 정부가 책임질 일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책임이 없다는 식의 판결을 낼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소송에 대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소송의 경우 한국 정부의 책임이 추궁되는 상황에서 왜 미국에서 소송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가라고 피고측이 주장하거나, 혹은 피고측이 주장하지 않아도 판사가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의 소송에 거의 기대를 걸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4. 저로서는 지금 당장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체의 과정 속에서 적절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미국에서의 소송의 대략적인 방향이 결정된 이후에 제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미국에서의 소송이 승산이 없다는 사실이 일정 정도 확인된 이후에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도 그것을 묻는 것이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한국의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구제라고 하는 구체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는 우리로서는 전술적인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국의 법원에서 한국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국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본 정부에게 얼마나 압력이 될 수 있었습니까?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모두 부정적입니다.

2001-08-01

4-5. "적어도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논의를 합시다."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5. 이 이메일을 최봉태 변호사님과 김은식 국장님께도 참조로 발송합니다. 장완익 변호사님께도 보내고 싶습니다만,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이메일 주소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장 변호사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Next Entertainment, LYCOS

=====

즐거워지면 인터넷이 아닙니다!! <http://www.lycos.co.kr>
 톡톡튀는 아바타 천국 - 라이코스 채팅 (<http://chat.lycos.co.kr>)
 나만의 깜찍한 음악상자 - 라이코스 라디오 (<http://radio.lycos.co.kr>)